“월하 대종사 ‘자비희사·생명존중’ 널리 펴자”

월하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 봉행
영축문화대상 시상 장학증서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19주기 추모다례재’ 및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월하 대종사가 생전에 실천해 온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와 영축문화대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19주기 추모다례재’ 및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다례재와 대상 시상식에는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참석해 월하 대종사의 사상을 기리고 유지를 잇는 영축문화재단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영축문화재단 이사장)과 대중스님,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다례재, 2부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3부 영축장학금 전달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식과 함께 대중스님들은 대중과 함께 삼배의 예를 올렸으며, 문도스님들을 중심으로 월하 대종사 영전에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또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인사말과 영축문화대상이 학술문화상, 봉사실천상, 포교원력상으로 나뉘어 수여됐다.

행사에서는 통도사 자비원에 공양미 50가마가 전달됐으며, 해동고 백효민 학생을 대표로 총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 원 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과 월하 대종사 부도전 참배로 마무리됐다.

월하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에서는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헌다에 이어 前 영축총림 방장 원명 지종 대종사의 헌다가 이어졌다. 이어 사부대중의 삼배와 함께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성파 대종사는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대중이 참석해 감사하다”며 “월하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고 종단의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추모다례재 후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제자들이 열반 10주기부터 유지를 잇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 등을 논의, 종정 예하 말씀에 따라 문화대상을 만들어 오늘 10회 시상을 하게 됐다”며 “60여 명에 달하는 불교문화계 인사들이 신청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에게 상을 시상하게 됐다. 영축문화대상은 월하 대종사의 유지도 있지만 통도사가 대사회적인 행보를 넓히고, 사회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불자들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문화상에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역대선사의 깨침과 수행관에 대한 학문 연구, 고찰’의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와 정신적, 물질적 지원도모 공로로 봉사실천상을 수상했다.

또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스님 등을 초청, 자국민 불교활동, 통역지원, 병원동행 지원 등의 공로로 경남파라미타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이 포교원력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영축문화대상 및 장학금을 수여한 영축문화재단은 2003년 입적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사상을 잇고 오늘날 국지대찰과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게 한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문도들과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축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취임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행사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유물 전시회 ‘영축산에 달뜨거든’ 행장기 봉정식도 진행됐다.

2016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017년에는 푸에르토리코 지진 피해 돕기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매년 두 차례씩 부산 해동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사와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밀양 삼봉사 생전예수재 봉행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12월 3일 삼봉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는 어산어장 현암 스님과 어산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불교방식으로 봉행됐다.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100여 명의 신도 및 사부대중은 의식이 진행되는 3시간여 동안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생전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했다.

생전예수재는 영산재, 수륙재와 달리 본인 및 가족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지내는 재라는 특징이 있다. 시왕신앙 중심의 사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기복이 아닌 자기 성찰의 의미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 생전예수재의 설행에서 이 같은 다른 의식과 달리 성찰과 참회, 권선징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녹원 스님은 “예수재는 미리 예, 닦을 수, 예수재라고 하였듯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살아생전에 생과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정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살아생전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악업들을 오늘 예수재를 통하여 소멸시키고 마음이 뻥 뚫려서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 행복하고 편안해지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상봉사에서 처음으로 봉행하게 된 예수재를 오늘에 하게 된 것은 동지를 앞두고 동지가 한해의 기운이 교차되는 시점이라 동지 전에 불자들과 예수재를 함으로써 계유년 새해 액운이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가정과 불자들에게 다가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장 묘법선원에서 참석한 최경남 보살은 “예수재 후 만족함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 지고 가족들의 편안함과 자신의 건강이 한층 좋아진 느낌”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사회가 밝아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봉사는 12월 1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천도재(49재)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주사암聯 8대 신임회장에 도일 스님 취임

7대 前 회장 상진 스님 이임…신임회장 취임식 · 효 경로잔치도



양주불교사암연합회가 12월 5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7·8대 회장 이·취임식 및 효 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7대 회장 상진 스님(청련사 주지)에 이어 8대 새 회장에 도일 스님(오봉산 석굴암 주지)이 취임했다.

前 회장인 상진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양주 사암연합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탁월한 사명감과 돈독한 불심을 갖고 계신 도일 스님은 사회복지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진력하시는 분”이라며“이런 훌륭한 리더십으로 앞으로 우리 양주사암연합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치하했다. 이에 신임 회장 도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소납이 중책을 맞아 걱정이 앞서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큰 서원을 갖고 공심으로 양주사암연합회를 이끌도록 진력하겠다”며 “역대 회장 스님들께서 성장 발전시켜 놓으신 초석 위해 성심을 다해 뜻을 이어 받들어 최선을 다하며, 특히 회원 사암 주지 스님들의 친목과 화합을 우선 시하며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취임사가 끝난 뒤에는 전임 집행부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및 신임 집행부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초청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은 봉선사 문화원장 성일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신임 회장 도일 스님의 수행과 행정력으로 양주불교사암연합회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다”고 축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새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 노인복지 기여자와 효자·효녀상 시상식,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의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에 이어 2부 행사 효 경로잔치 한마당이 펼쳐져 초청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주=김주일 기자

태고종 총무원 ‘2022 자비나눔’ 행사 펼쳐

12월 2일 양주 시청 방문해 후원물품 전달
종로·고양·인천 등에 김장김치 4천만원 상당
양주 청련사도 성금 5백만 원 양주시에 보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양주시청에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원장 호명)이 ‘2022 태고종,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나눔 행사를 지역순회 형식으로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태고종은 우선 12월 2일 경기도 양주시청을 방문해 강수현 시장에게 김장김치 10kg 100박스와 컵라면 6개들이 150박스, 두루마리 화장지 150박스, 고무장갑 500 켤레 등 1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현 시장은 “항상 양주시 관내에 있는 태고종 청련사에서 연말연시 후원물품을 보내주셔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나눔 정신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태고종단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고종은 이어 서울 종로구청과 경기 고양시청, 인천 중구청 등도 잇달아 방문,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12월 중순경 서울 종로지역 일대서 시민 대상으로 ‘팥죽나눔’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도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동방대학장),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회부장 현담 스님,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진암 스님, 각명사 주지 법혜 스님, 보현사 주지 석정 스님 등이 참석했다.

양주=김주일 기자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



창원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 불지사 주지)가 12월 5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학상을 수상한 이달균 경상남도문인협회 회장은 1987년 등단 후 현재까지 9권의 시집과 평론집 출간, 국내 유수의 권위 있는 문학상 수상으로 경남문단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경남문인협회장을 맡아 지역 문학 역량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해왔다.

예술상을 수상한 박금숙 경남서예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예가이자 한학자로서 경남지역 예술계의 모범적인 창작활동과 지역문화 인물 발굴 선양 사업을 이끌었으며 창원예총 회장, 경남서예단체총합회 회장 등을 맡아 예술계의 화합 상생을 위해 크게 노력해왔다.

언론상을 수상한 장원일 MBC경남 사업센터장은 1995년 마산MBC 기자로 입사해 현재까지 27년 동안 언론인의 길 걸어오면서 일선 기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장취재 보도를 통해 향토언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왔다.

한마음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박수철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은 1991년 산해원문화상 제정과 함께 32년 동안 재정확보와 운영 전반을 주도했으며,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해왔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7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창원불교사암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삶에 있어서 지혜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창작물의 진원지이며 예술은 그 다양한 창작물들을 성숙시킨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이며 언론들은 창작과 창조에 한층 더 의미를 부여하여 모두에게 전해주는 수레바퀴이며, 공로는 오직 한마음으로 창작과 창조의 수레바퀴를 이타(利他)정신으로 보존하며 키워 나아가는 데 혼신을 쏟아 붓는 분이라 할 것이다”고 치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문화해설사 3기 수료식

사찰문화 해설사 교육과정
15회 강의 30시간 교과과정
3개월 교육과정 21명 수료
사찰현장서 해설사로 활동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가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법회를 봉행했다.

12월 3일 수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에는 3개월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21명의 불자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현사 주지 응묵스님, 용묵 스님.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 장석희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청년회원, 1·2기 사찰문화해설사들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은 “사찰문화의 중심이 되는 전각, 불상, 탱화, 단청, 탑 등은 오랜 세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며 “자격 취득을 축하하며 지인들에게도 두루 알려 사찰문화해설사문화가 발전하고 지역불교와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화 대불청중앙회장은 “스님들의 자비정신이 깃든 주어사, 천진암, 해미읍성이 천주교 성지로 둔갑하고 광화문 역사물기 연표석 오류, 십자가 보도블록 설치 등으로 불교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찰문화해설사 제도를 대불청의 주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기 수료식에서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안예진 학예사, 전북불교대학 부학장 이지복 교수, 원광대 김정희 교수의 지도로 15회의 강의를 통해 총 30시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논술형과 서술형 시험을 통과한 21명의 회원이 사찰문화해설사 자격을 취득했다.

사찰문화해설사는 문화재 지킴이활동, 사찰문화와 역사해설, 동영상제작 유튜버, 사찰현장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어린이 법회 ‘숲 법회’ 1년 회향



광주지역의 특별한 어린이 법회인 ‘숲 법회’의 1년 회향식이 열렸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회장 동천)가 진행하는 숲 법회는 매월 첫 주 일요일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법회이다. 어린이법회가 거의 없는 광주의 포교여건에서는 귀중한 포교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날 법회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법회에 대한 회향과 참여한 어린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지장 스님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법회를 축하했다.

도계 스님은 “1년 동안 건강하게 숲 법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개암사, 이웃돕기 백미 140포 기탁



부안 개암사(주지 종고)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개암사 총무 지형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28일 부안군을 방문해 연말을 맞아 부안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 전해달라며 백미 10kg 140포(300만원 상당)를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개암사와 개암사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으로 개암사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100박스를 기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